

2019.3월 제5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OPINION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3월 제5호

CONTENTS

이슈 리포트	2
OPINION	13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19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26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 금감원, 2018년 ICO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조사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수 국내 기업이 ICO 금지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됨
-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국내 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음
-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 백서 및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할 시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임
 -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었고 총 규모는 약 5,664억 원, 1개사 평균 330억 원 수준
 - ICO 자금 조달액 : ① 300억 원 이상 기업 - 4개
 - 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 기업 - 8개
 - ③ 100억 원 미만 - 5개
- ICO와 관련한 중요한 투자 정보인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개발자 현황 및 프로필 또한 허위 기재될 우려가 있음
- 특히, ICO모집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 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가 없었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함
-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됨
-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였음

-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었고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단임
- 2018년 말 기준 신규 가상통화 가격은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가 하락, 수익률은 -15%~96% 사이
-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를 비롯하여 ICO 관련한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 사례가 다수 발견됨

2. 주요국, ICO 정책 신중 기조 유지

- ICO 관련 국가 대부분은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 체계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미국은 증권법으로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실제 최근 미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하여 지난해 11월 관련자 기소 및 해당 ICO 중단 등 조치
- 싱가포르, 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함
- 기타 EU, 영국, 일본 등은 ICO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며 현행 투자자 보호 장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음
- G20, FSB 등 국제기구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임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안정위원회

3. 당국 “ICO 위법 행위 엄정 대응,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 한국 정책 당국은 ICO 관련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특히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책 당국이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투기과열 현상 재발 및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형법상 과대광고·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와 관련해 당국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우선적으로 통보한다는 입장이며,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 관련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 정부 규제 대상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임
-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중소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 중임

이슈 리포트

- SW·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372억 원에서 2018년 1,368억 원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이 같은 산업 추세에 맞춰 정부도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예를 들어 공공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임
- 올해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분야에 작년 보다 두 배 증가한 1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여 민간 기술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임
- 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자자들 스스로 ICO 투자에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함

[별첨] ICO 실태점검 결과 세부내용

1. 점검배경

- 앞서 2018년 8월 국내 정책 당국은 ‘가상통화 관계차관회의’에서 ICO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업계에서는 ICO 관련 잠재적 투자피해 우려가 여전함에도 ICO 전면 금지방침을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2. 점검실시 개요

(1) 점검 개요

- 실태점검은 언론 및 인터넷 등으로 확인된 22개 국내 블록체인 기술개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됨
- 정책 당국은 회사의 임의적인 협조를 얻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회수 및 백서, 홍보 자료(웹사이트 등)를 점검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11월 까지 3개월간 진행됨

(2) 점검 주요항목

- 질문서는 ①회사 개황 ②프로젝트 내용 ③ICO 내역 ④투자자 부여 혜택 (권리) ⑤국내투자자 대상 홍보 내역 ⑥기타 사항 등 6개 부문과 52개 문항을 기초로 구성됨

3. 점검 결과

(1) 회사 관련

- 우선 국내 개발회사의 경우 조사대상 회사는 22개로, 이 중 16개 회사는

이슈 리포트

최근 5년 이내 설립됐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17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7개임

- 임직원 수는 평균 50명 내외였으나 30명 미만인 곳도 9개 있었음. 4개 회사는 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규모 대부분은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로 1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2개에 불과함
- 해외 ICO법인 발행회사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이었으며, 임직원 수는 3명 내외로 개발회사 임원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들 회사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ICO 규제가 비교적 약한 싱가포르 (10개), 스위스(3개) 등에 국내 개발회사 또는 개발회사 최대주주가 소액을 출자해 유한회사 혹은 재단 형태로 설립한 회사임
- 국내 개발회사는 주로 프로젝트 개발, 백서 작성, 투자자 홍보(온라인 홍보, meet-up 등)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에 해외 발행회사 대부분은 ICO 진행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답변서에 따르면 ICO로 모집한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발행회사 명의로 보관하거나 환전하여 국내 개발회사로 송금됨

(2) 프로젝트 관련

-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연계 프로젝트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임
 - 자체 블록체인 기술개발 또는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할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개발 등을 진행
- 프로젝트 대부분은 현재 플랫폼을 개발 중이거나 베타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격적인 상용화와 매출 발생까지는 1, 2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리버스ICO’ 기업을 제외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3) ICO 관련

- 대부분 ICO는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급증한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ICO 조달액은 333억 원(ICO 완료 시점 기준)이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300억 원 이상이 4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가 8개, 100억 원 미만이 5개임
 - 투자자 파악은 불가능했지만, 한글 백서 및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투자자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ICO를 완료한 19개 회사 중 18개의 신규 가상통화가 국내외를 포함한 평균 4.4개 취급 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한 곳은 ICO를 완료했지만,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
- 2018년 말 기준 18개 신규 가상통화 가격은 평균 67.7%가 하락

하락율	△10%~△30%	△40%~△60%	△60%~△80%	△80%~△100%
회사 수	3사	3사	4사	8사

(4) 투자자 권리 관련

- 당국은 신규 가상통화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익배당 및 의결 참여 등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지 질의하였으며 답변서를 제출한 13개사 모두 신규 가상통화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이슈 리포트

- 일부 발행회사(22개사 중 7개)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백서에 기재했으나, 다수의 발행회사는 ICO 과정에서 선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신규 가상통화를 플랫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남

(5) 국내 홍보 관련

- 22개 회사 가운데 21개가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백서뿐만이 아니라 한글 백서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들은 홈페이지 외에 각종 SNS(카톡,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국내 투자자 대상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ICO 홍보를 위해 국내 개발회사 임원진 또는 개발진이 참여하는 투자자 대상 오프라인 설명회(meet-up)도 개최함

4. 평가

- 대부분은 개발회사가 국내 ICO 금지방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ICO 관련 정보 공개 투명성이 낮았음
- ① 개발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 : 사실상 개발회사가 ICO를 통해 신규 가상통화를 조달한 것임에도 대부분 소규모 신설 법인이라 정보 제공이 매우 부족했으며, 회사 개황, 사업 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음
 - ② 프로젝트 내용 난해 및 진행 과정 불투명 : 백서 상 사업내용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프로젝트 진행 경과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고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③ ICO 모집자금 사용 내역 등 미공개 : ICO로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모집한 가상통화(이더리움 등)의 사용 내역의 정보 공개가 미흡함
- ④ 개발진의 프로필 공개 불투명 : ICO시 투자자의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인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이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었음
- 플랫폼상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
 - 잠재적인 플랫폼 참여자 또는 ICO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 해당 소지가 있음

OPINION

-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JP모건, 가상화폐까지 발행..그 속내는?
- 하태형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

한국블록체인협회

■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JP모건, 가상화폐까지 발행...그 속내는?

글_ 하태형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

“비트코인은 사기(fraud)다.”, 2017년 9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의 이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4200달러 선에서 4060달러 선까지 약 4% 곤두박질쳤다. 그는 2017년 9월 12일 영국 금융사 바클레이스가 뉴욕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을 이끄는 CEO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과격한 표현으로 비트코인을 공격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왜 이러한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했던 것일까? 당시 그는 이러한 투자 광풍이 400여 년 전 네덜란드 튜립 사재기 광풍을 연상시킨다며, 결국 거품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그는 가상화폐를 거래한 JP모건 소속 트레이더를 해고했다며 “(이는) 우리의 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데다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JP모건의 ‘두 얼굴’은 여기서부터다. 이 은행은 수장의 발언 이후 가격이 급락한 비트코인 상장지수증권(ETN) 300만유로(약 41억원) 어치를 끌어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가상통화에 대한 다이먼의 혐오는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그는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2013년 12월 중국이 은행을 통한 비트코인 규제를 발표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다음 달인 2014년 1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치의 보존 수단으로서 최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점은 제이미 다이먼회장이 약 4개월 이후인 2018년 1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후회한

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현실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 달러(crypto dallars) 등도 가능하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이러한 발언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 후인 2월, JP모건은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어놓는다. 즉 2월 8일 발간한 암호화폐 관련 내부보고서에서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탈중앙화와 P2P 네트워크, 익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그 해당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또한 암호화폐가 향후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둘러싼 혁신적 소용돌이의 일면”이라며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과 안전성, 보안 문제 등 꾸준한 시행착오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은 실제로 암호코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인을 지탱하는 기술에 관해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었다. 2017년 비트코인 매수자들의 지능에 의문을 제기했던 바로 그 회의장소에서, 그는 “블록체인에게 축복을 기원한다”고 말하는 등 그는 직원들에게 자유분방한 암호화폐 세계에 기원을 둔 블록체인이란 기술 활용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내부적으로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실 이미 JP모건은 수년 전부터 조용히 ‘블록체인 열풍’에 동참하고 있었다. 즉 블록체인이 ‘게임 체인저(어떤 일에서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가 될 만한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두 가지 방향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쿼럼(Quorum) 프로젝트이며, 둘째는 블록체인 기반 ‘인터뱅크 정보 네트워크(Interbank Information Network: IIN)’이다.

이중 쿼럼 프로젝트는 해당 플랫폼을 주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출, 결산, 이자 지급 등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10월 암호화폐 미디어 BTC 매니저에 따르면, JP모건은 쿼럼(Quorum)을 통해 골드바(gold bar), 귀금속, 부동산, 고가 미술품 등 자산을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인 IIN은 기본적으로 국경 간 송금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넥스트라(finextra)에 따르면, 현재까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Interbank Information Network-IIN)에 전 세계 100여 개 은행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된 은행들은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 분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이 주도하는 IIN은 은행들이 국경·기관 간 송금 효율을 더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규제 이행과 오류로 2일이 소요되던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JP모건은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으로서 다이먼 회장의 표현처럼 기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암호화폐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암호화폐가 가지는 특징들, 예컨대 블록체인을 통한 업무 절차의 간소화 및 해외송금 등에서의 장점을 별도로 연구하고 구현해 나가고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후로도 JP모건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더욱 유화적인 정책들을 발표한 다. 2018년 9월, JP모건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한 세계 최대 거래소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함께 손잡고 만든 규제화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crypto trading desk)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2019년 들어서도 이러한 유화적 기조는 계속되었다. 금년 1월 JP모건 글로벌 연구소 조이스 창(Joyce Chang) 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와 분리 성장할 것”이라며, 이 기술을 통한 의미 있는 변화는 “3~5년 뒤 무역 금융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놀랄만한 발표는 한 달 뒤인 2월 중순에 나오게 된다. JP모건이 자사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미국 은행으로는 처음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JP모건의 ‘JPM 코인’은, 일단 모든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기업이나 은행, 증권 중개인 등 확인된 JP모건의 기관급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된 서비스로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베타 테스트가 완료되면 고객층을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JPM 코인 이용자는 은행에 달러를 입금한 뒤 코인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결제 등을 하는데 이후 은행은 코인을 폐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된다.

미국 달러화와 1대 1교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치가 변동해선 안 되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와 유사하게 설계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는 2018년 일본의 미즈호

은행이 발표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J코인’ 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글로벌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계획은 리플(XRP)같은 코인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JP모건이 출시한 JPM 코인이 리플(XRP)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JPM 코인은 리플처럼 결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되며, 리플과 달리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격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리플의 계획은 ‘메이저 은행의 XRP(xRapid) 채택’ 인데, 의심할 여지 없는 메이저 은행인 JP모건이 기관 고객들에게 JPM 코인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XRP 채택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리플의 계획은 JPM 코인 출현 이전에도 과대평가된 것이었는데, 메이저 은행들이 자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국제 결제를 독점하는 특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이제는 JP모건 같은 글로벌은행과 기존 금융체계를 부정하는 암호화폐간의 일대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되는 느낌이다.



하태형

-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
- 한국블록체인학회 산하 블록체인 분석평가위원장
- 법무법인 율촌 고문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2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대만 미디어 “자유한국당,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도입”

- 1일 대만 미디어 차이나타임즈닷컴이 따르면, 국내 자유한국당이 대만 블록체인 LoT 솔루션업체 Ioex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 밝힘
- 양 측은 Ioex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 기존 투표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당내 정보 공개, 각종 투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 BOK 연구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융안정 저해 우려 존재”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BOK) 부연구위원이 BOK 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함
- 이와 관련해 해당 연구팀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부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업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고 설명함
- 이어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요구불예금 : 예금자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자금

■ 티몬·테라, 다음달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 8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국내 1호 소셜커머스플랫폼 티몬이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최초로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임

-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이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테라는 다음달 티몬 내 암호화폐 결제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막바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테라 관계자는 “카카오머니를 구입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티몬에서 테라로 결제하는 고객들도 일종의 가격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결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스테이블 코인 방식”이라며 “테라가 성공하면 향후 암호화폐 결제 시장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최종구 “P2P 금융,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 및 법제화 필요”

-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 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 개인 투자자들도 25만명이 넘어섰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 업체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함
- 그러면서 그는 “P2P 금융의 법제화는 업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힘

■ 과기부, ICT 기업 지원사업 공고...블록체인 등에 837억원 투자

-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Global 프로젝트’를 공고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올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개 세부 사업에 총 8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빗썸, UAE 정부 공인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추진

-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엔벨롭(NVELOP)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다고 밝힘
- 양측은 현지 최초로 법정통화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엔벨롭과의 제휴를 통해 빗썸이 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해외사업 중심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함

■ 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시작

-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 신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고 밝힘
-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도 성남, 시흥시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음

■ 유영민 과기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ICT 혁신 실험장 열려”

-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 열렸다”고 말함

-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규제혁신이었는데,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뤄지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힘

■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코인업’ 투자 주의 당부

- 1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코인업(CoinUp)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함
- 이와 관련해 협회는 “협회 소속 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하거나 상장을 검토 중인 곳은 없다”며 “투자자들은 협회와 협회 회원사를 사칭한 사기성 거래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함
-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수립이 장기 지연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성 거래소의 불법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시각이며, 건전한营业을 지향하는 거래소만 피해를 보는 현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의적절한 기준 제시를 호소함

■ 외신 “갤럭시 S10, 암호화폐 월렛 지원 소프트웨어 탑재”

- 21일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S10 모델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프라이빗 키 저장 기능이 포함된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삼성nox(SamsungKnox)가 탑재되었다고 보도함
- 개발자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앞서 소문처럼 갤럭시 S10이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를 제공할지, 아니면 월렛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프라이빗 키 저장 기능만 제공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임

■ KT, 3월 중 BaaS플랫폼 출시 예정

-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블록체인 유망기업 대상으로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Blockchain as a Service)’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 KT는 BaaS 플랫폼 도입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3월 중 BaaS 플랫폼을 정식 출시할 계획임
- 시범 서비스 참여사로 선정된 기업은 KT BaaS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사업 추진 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외신 “엔진 월렛, 갤럭시 S10 블록체인 키스토어 채용” ...샘플에 불과 반박도

- 25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아시아 크립토투데이의 보도를 인용해 엔진 월렛이 삼성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지원하게 됐다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공한 갤럭시 S10 블록체인 키스토어 이미지에 엔진 월렛이 등장하였으며 이미지는 엔진 월렛의 스크린샷으로 ETH와 ENJ(엔진 코인), BAT(베이직 어텐션 토큰)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임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소식통을 인용해 “엔진 월렛이 갤럭시 S10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3,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전문가는 “갤럭시S10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사용 예제로 엔진 월렛이 채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고 반박함

■ 정부 무대응에 국내 블록체인 일자리 13만 개 증발 위기

- 26일 머니투데이 방송이 정부의 정책 공백으로 인해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 13만 7,000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함
- 미디어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만일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2022년까지 최대 13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전담 조직은 잇따라 사라지고, 정부의 의도적인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금융감독원은 이달 조직개편에서 핀테크지원실 산하의 ‘블록체인연구반’을 없앴으며, 한국은행 역시 ‘가상통화연구반 태스크포스(TF)’를 없앴고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가상통화 대응팀’을 해체한 상태임

■ LTC재단, K-pop 콘서트 기획사와 파트너십 체결...LTC로 티켓 판매

- 28일 라이트코인(LTC, 시가총액 5위) 재단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K-pop 관련 콘서트 기획사 C&U 엔터테인먼트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오는 4월 6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개최될 ‘Feel the K-pop’ 콘서트의 VIP 티켓을 LTC로 판매한다고 밝힘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2019. 2월]

- 미국
- 러시아
- 영국
- 중국
- 일본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머크, AI·블록체인 기반 제품 식별 기술 특허 취득

- 1월 31일 미국 제약 전문지 파머슈티컬 테크놀로지(Pharmaceutical-technology)에 따르면, 독일 소재 생명과학기업 머크 그룹(Merck Group)이 최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 대상(crypto-objects)’ 기술 특허를 취득하여 의약품 공급망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Merck Group(머크 그룹) : 창립 350주년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 화학 기업

- 이 특허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DNA, 특정 패턴 등과 같은 물체의 ‘지문’ 으로 불리는 식별자를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이사벨 드 파올리(Isabel De Paoli) 머크 CSO는 “이는 제약, 식품 업계 등과 같이 안전한 공급을 통한 제품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국 NYDFS, BTC ATM 운영사에 ‘비트라이선스’ 발급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뉴욕 소재 암호화폐 ATM 서비스 업체 커튼우드 벤딩(Cottonwood Vending LLC)에 암호화폐 관련 영업 허가(비트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고 밝힘
- 이는 NYDFS가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한 3번째 비트코인 ATM 운영사로, 앞서 NYDFS는 코인소스(Coinsource), 리버티X(LibertyX) 등 비트코인 ATM 업체에 라이선스를 발급한 바 있음

■ 미국 SEC,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니터링...데이터 공급업체 물색

- 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게이프(Coingape)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해당 미디어는 SEC가 디지털 자산리스크 모니터링과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할 데이터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함

■ 미국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 R3 컨소시엄 합류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루터(David E. Rutter)가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WSBA)의 R3 합류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해 그는 “WSBA와 R3는 규제 당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장 및 기타 분야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WSBA(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 : 2015년 미국 월가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세계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시켜 투자자산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되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관계자, “백트, 오는 3월 CFTC 승인 전망”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애버커스저널(abacus journal)이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의 초기 투자자인 뉴욕증권거래소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하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백트 출범을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미국 정부의 섯다운이 종료됨에 따라 CFTC의 백트 출시승인 심사가 재개됐으며, 3월 중순 최종승인을 위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임

■ IBM, 블록체인 기반 지하수 사용 현황 모니터링 프로젝트 추진

- 8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글로벌 IT 기업 IBM 산하 IBM 리서치가 담수 생태 시스템 보존 등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더프레시 워터 트러스트(The Freshwater Trust), 원거리 센서 시스템 전문업체 스위트센스(Sweet Sense Inc.)등과 협력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힘
- 이들 기업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지하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임

■ 미국 CME · CBO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역대 최저치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Bitcoinist)가 암호화폐 거래 정보 사이트 트레이드블록(Trade Block) 통계를 인용하여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와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2017년 출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2018년 7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18년 12월 기준 2017년 12월 출시 이래 최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고 설명

■ 미국 SEC위원 “암호화폐 규제 모호성, 기술적 자유도 상승”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원이 “암호화폐 산업 관련 정부의 규제 마련이 지연될수록 업계의 ‘자유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에 앞서, 현재의 규제 모호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SEC는 현

행법을 훼손시키지 않는 동시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 CIA “전 세계 대규모 부채, ‘초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 보고서(World Factbook)’를 인용 “경제 대국(big economies)과 파산 직전의 국가(near-failed states)는 ‘대규모 부채(massive debt)’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함
- 해당 보고서는 “국가의 과다부채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대로 침체기를 겪게 된다면, 초비트코인화(hyperbitcoinization)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초비트코인화(hyperbitcoinization) : 전통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본원적 통화 가치가 구식이 되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

■ 미국 SEC위원, “블록체인 토큰, 증권법 적용 부적합”

-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9일 미국 미주리 법대에서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증권 체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중앙집중된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투자자들을 찾아 토큰이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이 경우 SEC는 증권법을 적용하거나 면제 조건을 갖추길 요구하지만 투자 계약으로서가 아닌 네트워크 기능을 위해 판매된 토큰은 증권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함
- 그는 “호웨이(Howey) 테스트로 알려진 70년 전 대법원 판례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해당 판례의 ‘투자 계약’에서 이익은 오로지 받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

(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는 조항 중 ‘오로지(solely)’ 가 생략된 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위원회가 DAO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중요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DAO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한 것이 그 사례”라고 지적함

■ 미국 전 세계 암호화폐 ATM, 총 4,128대

- 12일 비트코인 ATM 맵 서비스 제공 사이트 코인ATM레이더(Coinatmrada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4,128대의 암호화폐 ATM기가 설치되었다고 밝힘
- 지난 2013년 말 캐나다 벤쿠버에서 세계 최초 BTC ATM이 설치되고 1년 뒤 총 282대의 암호화폐 ATM이 설치되었으며, 2016년 처음으로 500대를 넘어섰고 2017년 초에는 965대, 2018년 초에는 2,064대에 달함

■ 블룸버그 “올해 신규 STO 90개 전망...2017년 대비 45배 증가”

- 13일 블룸버그 통신이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 약 90개 신규 증권형 토큰 공개(STO)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는 2017년 2개에 그쳤던 신규 STO 프로젝트에 비해 45배 증가한 수치로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공개(ICO)를 당국에 정식 등록이 필요한 증권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 기업들이 증권형 토큰을 채택해 규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 외신 “JP모건,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 발행 추진”

- 14일 미국 경제 전문미디어 CNBC가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미국 메이저 은행 최초로 고객들의 대규모 거래 관련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발행 암호화폐 ‘JPM 코인’(JPM Coin)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고 보도함

- 앞서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며 BTC는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 애플리케이션은 끝이란 것이 없고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언제 어디서든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JP모건, JPM 코인 테스트 단계...당분간 개인 서비스 無

- 15일 JP모건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JPM 코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였고 JPM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관 계좌 간 금융 거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JPM 코인은 법정화폐의 성격이 아니다.
 :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JP모건의 지정된 계좌에 보관되며 1 JPM의 가치는 1달러로 고정된다. 특정 기관 고객이 또 다른 고객에게 자금을 송금할 때 JPM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JPM은 즉각 상응하는 가치의 달러로 변환된다. 이를 통해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JPM 코인 작동 프로세스 : JP모건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위탁하고 동일한 수량의 JPM 코인을 받는다. 지급 받은 JPM 코인은 다른 JP모건 고객과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예: 현금 거래, 증권거래 등)에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JPM 코인 보유자는 JP모건을 통해 달러화로 환급받을 수 있다.

3. JPM 코인은 현재 소수의 JP모건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프로토타입으로, 올해 안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JPM 코인은 현재 B2B(business-to-business) 자금 이동 흐름을 위해 설계됐으며 테스트 단계에서 개인 고객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

■ 미국 CME CEO “암호화폐 성공 여부, ‘정부 승인’ 이 관건”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 그룹 CEO 테리 더피(Terry Duffy)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그는 “법정화폐, 암호화폐와 같은 화폐의 성공 여부는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음엔 은행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지만, 현재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메이저급 은행들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구글 키보드앱 ‘지보드’ iOS버전, BTC 심볼 추가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최근 구글의 자체 키보드 앱 지보드(Gboard) iOS 버전에 비트코인 심볼인 ‘฿’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에 따르면, 지보드 사용자들은 키보드 내 달러 기호를 길게 터치해 비트코인 심볼 ‘฿’를 입력할 수 있으며, 현재 해당 기능은 지보드 iOS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함

■ 미국 블록체인 지지단체, 정부에 ‘블록체인 산업육성 국가전략’ 촉구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지지단체인 ‘디지털 상공 회의소’ (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정부 당국에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시행을 촉구함
-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정부, 기업, 소비자가 블록체인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성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디지털 상공 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해당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업체 비트페이(Bitpay) 등 다수의 유명업체가 동참하고 있음

■ 아마존, 코모도와 협력해 블록체인 제작 툴 출시 예정

- 26일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아마존이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 개발업체 코모도와 협력해 1분 만에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체인리자드(Chainlizard) 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서비스는 현재 내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금년 2분기 공식 발표될 예정임

러 시 아

■ 러시아 최대 민간 은행, 블록체인 기반 공과금 결제 플랫폼 출시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민간 은행 알파뱅크가 클라우드 솔루션업체 크바르플라타(Kvartplata)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과금(utility bill) 결제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알파뱅크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공공사업 분야의 투명성과 결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러시아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법안 제정, 시기상조”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9일 러시아 의회 바체슬라프 보로딘(Vyacheslav Volodin)하원의장이 “디지털 경제에 관한 법인이 곧 열릴 의회의 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해 코노바로브 장관은 러시아 헌법 제75조를 인용하며 “러시아 헌법과 현행 금융법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categorically prohibit)’ ”고 덧붙임

■ 러시아 법원, 자금 세탁 방지법 개정...암호화폐 포함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현지 법률 전문 사이트 프라보(Pravo)를 인용, 러시아 최고 법원이 지난 2015년 7월에 발표한 자금 세탁 방지법(AML)에 대해 새로운 개정을 도입했다고 전함
- 알렉산더 체르보트킨(Alexander Chervotkin) 판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며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할 시 형사 범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 2대 항구, 트레이드렌즈 시범 도입 예정

- 27일 러시아 금융 전문미디어 코메르산트(Kommersant)가 맥심 아키모프(Maxim Akimov) 러시아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의 공식 문건을 인용 “러시아 2대 항구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글로벌 해운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해당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총 100억 루블(1.52억 달러) 이상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관측함

■ 외신 “푸틴, 러 연방회의·국가두마에 암호화폐 관련 규정 시행 명령”

- 2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까지 암호 관련 규정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으며, 러시아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오는 봄 회의 전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디지털 기술 기반한 금융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영 국

■ 영국 B2C2, 산하 OTC 플랫폼 영국 금융감독원 라이선스 취득

- 1월 31일 미국 온라인 경제 전문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 Magnates)에 따르면,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B2C2가 31일(현지시간) “자회사 B2C2 OTC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발부한 차익거래 (CFDs) 규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힘
-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승인한 첫번째 암호화폐 차익거래 플랫폼임

■ HSBC, 블록체인 통해 외환 거래 결산 비용 25% 절감

-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대형 은행 HSBC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외환 거래 결산 비용을 25% 절감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마크 윌리엄(Mark Williamson) HSBC FX 현금 거래 및 리스크 관리 부문 COO는 “HSBC는 하루 3,500 ~ 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 ‘FX Everywhere’ 시스템으로 처리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덧붙임

■ 영국 채굴업체 아르고, 클라우드 채굴 서비스 종료

- 15일 외신에 따르면,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암호화폐 채굴업체 아르고 블록체인(Argo Blockchain)이 오는 4월 1일까지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채굴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채굴(MaaS)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직접 채굴 사업으로 전환하며, 인프라 재배치 등으로 관리 비용을 35%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밝힘
-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에드워드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사업 첫 6개월간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뒀으며, 이러한 변화를 겪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불황을 이겨내고, 산업 기반이 성장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고 부연함

■ 머큐리 FX, 2019년 xRapid 결제 채널 10개 구축 예정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영국 국제 환전 서비스 머큐리 FX(Mercury FX)가 올해 중반기 리플의 xRapid를 사용해 리플(XRP) 기반 국제 송금을 제공하는 결제 채널 10개를 구축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엘리스테어 콘스턴스(Alastair Constance) 머큐리FX CEO는 “해당 채널은 영국에서 캐나다, 중동, 멕시코, 필리핀까지 확장될 것”이라며 “중동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곧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의 채널 구축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영국 와이어렉스, 기관용 암호화폐 · 법정화폐 결제 솔루션 출시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에 따르면, 영국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와이어렉스(Wirex)가 기관용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결제 솔루션을 출시하였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이는 최초로 규제 당국의 관리를 받는 서비스로 현재 BTC, ETH, LTC·XRP,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함

중 국

■ 중국 바이낸스, 결제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 체결..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 지원

- 1월 31일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스라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심플렉스(Simplex)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함
- 이를 통해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BTC, ETH, LTC, XRP 등 총 4종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더리움 기업 연합, 중국에 지역 지사 설립 발표

- 14일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이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에 아시아 지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해 EEA는 “중국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완체인(WAN, 시가총액 100위) 장웨이지가 부사장을 총괄 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함

■ 중국 보험기업, 블록체인 기반 신실크로드 무역 플랫폼 구축

- 19일 중국 유력 경제미디어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보험기업인 핑안그룹이 신실크로드 지역을 아우르는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을 홍콩에서 구축 중이며, 이를 위해 중국 규제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축되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금융 경제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핑안그룹의 설명임
- ※ 신실크로드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지역 개발 전략

■ 중국 중앙은행, “2019년 CBDC 연구 가속화” 공식 선언

- 22일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Sina Finance)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부총재 겸 은행 과학기술 발전 평가심사단 대표 판이페이가 21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화폐 발행과 지폐 처리 서비스의 전환을 위해 개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 외신 “중국 6대 국영 상업은행, 블록체인 활용 방안 모색 중”

- 26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가 칼럼을 통해 “중국 내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교통은행 6대 국영 상업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방안을 테스트를 해왔다”라고 보도함
- 해당 미디어는 “현재까지 블록체인 활용 테스트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중국은행으로, 암호화폐 지갑, 무역 자금조달, 부동산 임대, 공익 캠페인, 해외송금 및 결제, 디지털 영수증 등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일 본

■ 일본 JCVEA, 자금결제법 대상 사업자 명단에 5개 기업 추가

- 1일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JCVEA)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2종 회원’ (일본 자금결제법 제63조 3항 적용 대상 라이선스 보유 암호화폐 교환 사업자 또는 등록 신청 및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 명단에 5개 기업을 추가한다고 밝힘
- 해당 기업은 머니 포워드 파이낸셜(Money Forward Financial), 오케이코인재팬(OKCoin Japan), 주식회사 머큐리(Mercury-inc), FX코인(FXcoin), 디커런트(DeCurrent)임

■ 일본 에이벡스 산하 핀테크 업체 “선불식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 8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워치(crypto.watch)에 따르면, 일본 대표 엔터테인먼트 에이벡스(AVEX) 산하 핀테크 업체 ECI의 CEO 아리타 유조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ECI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코인’ 을 기반으로 선불식 결제시스템과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그는 “코인 자체에 블록체인을 응용하지 않고, 선불식 전자 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일본 암호화폐 등 기타소득 20만 엔화 이상 개인에 소득 신고 의무화

- 18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세무국이 ‘2018년 소득세 납부 대상 확정신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정책 대상자는 연봉 2,000만 엔화 혹은 연봉 외 소득 20만 엔화 이상 개인으로, 일 년 중 납부 의무 세금과 원천징수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계산하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함

- 특히 연봉 외 소득에는 암호화폐 등 부수입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거래소, 2018년 12월 ‘활성계좌’ 161만개...감소 뚜렷

- 21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공인 자율규제 기구인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월간 거래소 주요 수치 통계 발표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2월 수치를 시작으로 매월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힘
- 2018년 12월 기준 16개 공식 라이선스 발급 거래소와 2개 라이선스 발급 대기 거래소 계좌의 총 예금 잔액은 2,786억 엔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암호화폐 자산이 2,069억 엔, 현금이 716억 엔임
- 총 계좌 수는 287만 개이며, 이 중 12월 한 달 내 거래가 발생했거나 자산이 남아있는 계좌는 161만개로 추산됨

■ 소니·후지쯔,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 위조 방지 시스템 개발

- 2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소니와 후지쯔가 해외 위조문서에 대한 대책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 위조 방지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였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일본 거주 자격 취득 요건 중 하나인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위조 행위를 예방한다는 설명이며, 해당 시스템은 도쿄, 오사카, 사가 등지에서 일본어학교 휴먼아카데미를 통해 이달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 3월1일 엔화 연동 디지털 화폐 ‘J-Coin’ 공개

- 27일 일본 경제전문지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일본 금융 대기업 미즈호파이낸셜 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이 오는 3월 1일 자체발행 엔화 연동 디지털 화폐 ‘제이코인’ (J-Coin)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제이코인 페이(J-Coin P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이코인을 통한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2년 내 650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30만 개 이상의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경찰청, “지난해 범죄연루 의심 암호화폐 거래 10배 증가”

- 28일 로이터 통신이 최근 일본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범죄 관련 통계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돈세탁 등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거래가 총 7,096건을 기록, 2017년 669건 대비 10배 증가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암호화폐 범죄를 분석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더욱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를 수사할 예정임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3월 제5호